

제78회 제1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월 27일 상오 11시
2. 폐 의 : 단기 4291년 1월 27일 하오 1시 3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박두순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 가. 보고사항
 1. 제77회 제2·3·4·5·6·7차 회의록 통과
 2. 각 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교육관계)
 3. 진정서 및 감사문 발송상황보고(교통부장관, 치안국장)
 - 나. 부의안건
 1. 단기 4291년도 제1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단기 4291년도 제1회 목포시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

3.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목포시 공익전당포 운영자금 기채안

5.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의 건

8. 토의사항

※ 제77회 제2·3·4·5·6·7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진정서 및 감사문 발송 상황보고

서기 박찬대 교통부장관 및 치안국장에게 발송한 진정서 및 감사문 발송 상황보고가 있었음

※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서기 박찬대 김기봉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가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소개 의원으로서 진정인측의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을 소개하였음

◇김 삼 성 의장

- 본 건 상임위원회 회부선언

※ 각 분과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김 삼 성 의장

- 신설교 부지선정건에 대하여는 거25일에 내무·문사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지로서 타에 적지가 없는 한 부득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보고하고 결의를 보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박찬대 서기 제안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거반 제77회 회의시에도 소방비 예산을 위요하고 상당한 물의가 있어 결국 일용 예비비로 계상한 바 있었거니와 금반의 추경예산안을 일견하건데 또한 의회 측을 농락하는 감이든다. 이에 대한 하등의 설명도 청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니 본 건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김 상 대 의원

- 풍수해 긴급구호 대책비는 전년도 이월금인데 이에 대한 영달은 어느 때 받았으며 가옥의 전파는 몇 동이며 반파는 몇 동인지 답변을 요청한다.

◇박 규 성 사회과장

- 영달 수부일자는 금년 1월 14일이었으며 전파비는 32동에 동당 23.300환씩 반파는 432동에 동 당 5.575환씩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정응표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

박찬대 서기 제안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역시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성 균 의원

- 본 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는 사의를 표하는 바이나 동정 운영의 실정을 도의시한 안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예로는

- (1) 수선비 및 수수료는 동 당 3,000환씩 배정하였는데 전등료는 어떻게 지변할 것이며 수도료등은 여하히 할 것인가
- (2) 특별 관공비 1년간 5,000환이란 어떻게 경리할 것인가
- (3) 90년도 법인 동정세는 얼마 정도 징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장 건 식 총무과장

- 수선비 및 수수료와 특별 관공비는 시에서 일괄 경리하게 되는 것이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 동정세는 90여만 환 징수하였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 동 행정 운영실적에 대하여 대 집행부 질의를 전개할 것을 긴급동의 재청...7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상 대 의원

- 지금 현재까지의 각 동별, 동정세 추곡수납, 공채 소화성적을 발표하여 주기 바라며 동 직원 근무실태 상황을 발표하여 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일부 동사무소 건물이 파괴되어 시급한 수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김 상 태 의원

- 전반적으로 동정세부과 100분지 100을 적용시켜 중앙동으로부터 불납동맹이라도 제기한다면 이의 수습을 여하히 할 것인가

◇김 창 희 의원

- 동정운영면을 이렇게까지 변경시킬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김 성 균의원

- 현금의 동행정운영의 실태는 종적사무와 횡적사무로 복잡다단한 것입니다.

국민반 운영에 있어서도 동서기가 반장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 허다 하오며 돌발적인 사무도 비일비재인데 여사 감원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 당국에서 위임사무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남 진 의원

- 농사구동은 과거부터 중원요청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반 일률적으로 1명씩 감원시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다.

(하오 12시 10분 김창희 의원 퇴장)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목포시 공익 전당포 운영자금 기채안

◇김 성 균 의원

- 양건공히 각 상임위원회 회부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신설 국민학교 부지 취득승인의 건

◇김 상 태 의원

- 신설 학교를 건축하자는 데 열의가 없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 니나 교육청의 실정이 시재가 없고 채무확정이 700여만 환 누적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제하여가며 신설학교를 건축한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김 경 인 의원

- 저반 내무문사 합동위원회 석상에서 교육감의 증언은 매일 평균 15만 환

대의 징수를 하고 있으며 보조금 800만 환이 별도 계정에 예치되었다 하기에 현금 1.000여만 환의 잔고는 있으리라고 보아져서 이에 부족액은 기재라도 하여 하루 속히 신축공고를 하여 신년도에도 신입학생 아동 모집을 하게 되리라고 믿어진바 있었는데 방금의 김상태 의원의 발언과는 상치되는 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계수적인 확실성 있는 답변을 요망하는 바이다.

◇이 정 권 의원

- 김상태 의원의 찬조발언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 도비보조 750만 환은 현금은 안왔으나 영달을 받고 있으며 징세액은 체납 물품을 공매 처분하면 소기액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모 교육 위원이 여고교장과 만났었는데 중앙 국민학교와 울타리 사이인 여고교사를 타처에 신축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국민학교를 유달산록에 신축하는 것 보다 이러한 방안을 구상하여 본적은 없는가

◇김 성 균 의원

- 집행부 측은 취득승인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답변을 지양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요망하는 바이다.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 (1) 정응표 의원 질문의 중앙교에서 여고교 흡수문제는 현금 중앙교 학구가 시내에 체일 교실사정이 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여고교사는 왜정시의 공장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교실의 광협등 그 차이가 심하여 부적당하며 더욱 여고교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수속절차도 복잡할 것입니다.
- (2) 김성균 의원 질문은 취득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신년도에는 신입아동을 모집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김 삼 성 의장

-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의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사 갑론을박하는

것이나 이는 그 내용을 너무 탐지한 기우심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에 대한 예산도 이미 통과하여준바 있으니 금차 회의에서 가
부간 의결을 하여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 세 문 교육감

- 과년도 교육세 미징분은 전력을 경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하려 합니다.

◇교육청 기사

- 본 건 의회측에서 의결만 하여 주신다면 즉시 공고를 실시하여 부지 300
평 가량은 2월 중순까지 정지를 완료하여 계속하여 건축에 착수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본 건 원안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명 남 철 의원

- 방금 기사의 증언에 2월 중순까지 정지를 완료하여 건축에 착수한다 하나
믿을 수 없는 말이며 설사 「독」을 들어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300평을 정
지하여 어떻게 할 셈이며, 어떻게 건축하여 수업을 시키겠다고 하는가 틀림
없이 4월에는 수업할 수 있다는 확증만 얻은 다면 통과시킬 용의가 있는 것
이다.

◇김 상 대 의원

-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재산 취득결의를 지지부진한다면 그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겠는가 고려하여 불일이다.

◇김 경 인 의원

- 집행부 측은 신빙할 수 없는 애매한 답변을 지양하고 계수적인 확실한 증
언을 하여주기 요망한다.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원안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국민교육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상에 놓고 일부 측에서는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고 하니 이 문제를 표결로서 통과시킨다는 것도 난처한 일인 것이다.

광범위한 문제를 재검토 할 것을 고려하여 차기의회까지 보류토록 할 것을 개의 재청...삼청

김상대 의원 동의 철회

강영낙 의원 개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1) 동정세 징수성적은 12월 20일 현재 총체적으로 6할 4부이며 가장 우수한 동이 대성1구, 호남동이고 제1불량한 동이 양동, 동명동, 유달동인 것입니다.

(2) 공채 소화성적은 평균 2할 가량이며 제1우순한 동이 죽교5구의 7할이고 불량한 동이 용당동의 7부와 양동의 9부인 것입니다.

(3) 동직원의 근무성적은 목하 주관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4) 동청사 요수리처는 용당동, 산정1구, 산정2구, 양동, 죽교4구, 온금동 등이거나 가급적 관할 유지등의 회사를 중용의탁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5) 김상대 의원이 발언하신 일반적으로 동정세 100분지 100을 적용시킴으로써 중앙동 주민의 불납동맹을 유발시킬 우려가 없느냐는데 대하여는 과거에 부담하여야 될 것을 부담 안하였으니 이에 대한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6) 김창희 의원 질문의 금반의 동정변경이유는 현금까지의 주변동에 대한 법정세율 초과를 시정하려면 이러한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7) 김성균 의원 질문의 동직원 감원으로 인한 측면적 사무량에 대한 대비책은 이렇게 되면 타기관에서는 협력 요청이 없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 연 수 산업과장 답변

- 25일 현재 추곡수납 성적은 2할 5부 가량입니다.

◇김 상 대 의원

-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한바 동장들이 공채 소화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나 농업협동 조합장

선거 문제에 있어서 김영완씨로부터 30만원, 이유신씨로부터 16만 원을 받아 착복하였다는 설가 윤간을 하였다는 등 잡음이 유포되고 있으니 이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 3인 정도를 선출할 것을 긴급동의 찬성 없으므로 폐기

◇강 영 락 의원

- 현재 당 시에 주선태, 도금봉 등 영화배우가 내시하여 당시를 배경으로 영화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예를 보아 이난영 여사의 「목포의 눈물」을 부름으로써 우리 목포를 인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국내를 물론이려니와 국제적으로도 우리 목포를 소개시키는데 좋은 기회라고 보아지니 우리 의회의 결의로써 대표단을 파견하여 격려하여 줄 것을 긴급동의

◇정 응 표 의원

- 대안이 좋은 안이라고도 보아지나 영화배우가 왔다하여 의회의 결의로써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도 고려할 문제라고 보아진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의장과 시장 사이에 상의하여 선처하도록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의집 수락

◇김 남 진 의원

- 위원회 조례를 변경하여 당시에도 타 시와 같이 건설분과위원회를 증치하도록 차기의회까지 제안할 것을 요망한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도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집행부 측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락

◇김 삼 성 의장

- 산회선언 하오 1시 35분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월 29일

시의원 명남철

시의원 김일섭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78회 목포시 의회 의사 일정표

※ 보고사항

1. 제77회 제2·3·4·5·6·7차 회의록 통과
2. 각 분과위원회 회의상황보고(교위관계)
3. 진정서 및 감사문 발송상황 보고

※ 부의안건

1. 단기 4291년도 제1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2. 단기 4291년도 제1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경정예산
3. 단기 4291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 목포시 공익 전당포 운영자금 기채안
5. 신설 국민교 부지 선정의 건

제78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월 30일 상오 11시
2. 폐 의 : 단기 4291년 1월 30일 하오 3시 4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1명
결석 천철수, 박두순, 임석희, 김남진,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각 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나. 부의사항

전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김 일 섭 내무위원장

-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및 일반회계 추경예산 등 각각 집행부원 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켰다는 요지의 보고와 동특경정 예산은 일부의원들의 퇴장전술로 인하여 심의불능 이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 진정서 발송 상황보고(대 정병조 관계)

서기 박찬대 진정서 낭독

◇김 삼 성 의장

- 동정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를 개최코자 30분간 휴회선언 11시 10분 현재

◇김 삼 성 의장

- 속개선언

※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김 일 섭 내무위원장

- 동 직원 중요 감원자에 대하여 봉급 비물불분은 시장이 지급책임을 부하함과 동시 그 외는 동에 일임할 것을 조건부로 각각 원안 통과를 보았습니다.

※ 단기 4291년도 제1차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박찬대 서기 제안이유 설명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일괄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제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김 성 균 의원

- 각 동에 현금을 배부하지 아니하고 그 경리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게 된다

면 앞으로의 동정은 막대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경우의 특별판공비 지출을 요할때는 여하히 할 것인가

◇김 창 희 의원

- 작일 개최예정이던 내무위원회가 성원 미달로 유회될 금일 본 회의를 2시간이나 중지하고 개최하였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내무위에서 원안통과를 보았다 하나 이는 필시 모종 정치적복선이 개재되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동장을 무보수로 하고 동 직원 20여명과 전달부 전원을 감원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처사라고 본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경솔히 취급하지 말며 기술적인 면에서 신중성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각동에 현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동은 시의 출장소라는 관념을 갖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김일섭 의원퇴장 재석 10명

◇김 삼 성 의장

- 김창희 의원이 말씀하신 정치적 복선이나 어떠한 이면 등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응표, 김상태, 김창희의원 퇴장 재석 7명

◇김 삼 성 의장

- 오전 회의 휴회선언 하오 1시 정작

◇김 삼 성 의장

- 오후 회의 속개선언 하오 2시 20분 정각

김일섭, 김상대 의원 참석 재석 9명

◇김 경 인 의원

- 김창희 의원은 종전의 세제를 주장하는 것 같으나 이는 도저히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건 중심동 주민에게는 그 취지를 이해시키도록 하고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재석 9명중 만장일치 가결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목포시 공익전당포 운영 자금 기채안

◇김 일 섭 의원

-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재석 9명중 만장일치 가결

※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의 건

◇김 상 태 의원

- 사실상 신설 국민학교를 건축할 만한 현금 잔고가 없는 것 같으니 오는 결산 감사시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

◇김 상 대 의원

- 우리 의회에서는 재산 취득결의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부지선정은 집행부 측의 일일 것이니 교육감의 확실성 있는 증언을 청취하여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가할 것 같다.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 본 건 의회에서 결의만 하여주면 금년도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신교사가 준공이 안 되는 경우라도 북교교에 의뢰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이 정 권 의원

- 북교교에 의뢰하여 임시수업을 시킨다 하나 신설교가 낙성되었을 때 신설 교의 아동의 이동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믿어지는가

◇박 세 문 교육감

- 그러한 문제는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본 건 취득결의안의 통과시킬 것을 개의

◇김 경 인 의원

- 방금 교육감이 답변 한 것은 신입생 모집 절차에 대한 말일 것이고 김상대 의원의 동의와 같이 결산 감사시까지 보류 하자는데 찬성하는 바이다. 불연이면 교육감의 계수적인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박 세 문 교육감

- 도당국으로부터 870만 환의 재정보조가 확정적인 것이며 그간 교육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앙에도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재정보조의 증배 요청을 하겠으며 불연이면 기채라도하여 신속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현금의 채무확정액 700여만환은 염두에 안두고 계신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박 교육감은 신입생 모집을 장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취득결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보아지니 김상대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는 바이다.

◇이 정 권 의원

- 김상대 의원의 동의에 찬성발언

◇김 일 섭 의원

- 김상대 의원 개의에 찬성발언

◇김 상 대 의원

- 집행부와 의결부의 사무집행 한계가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그 책임소재가 나뉘어 있을 것이며 명분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이 말하는 중언과 이정권 의원의 조사내용이 판이 하자않은가

◇김 성 균 의원

- 과년도에 특별부과를 부과하여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교육감 재임시의 일이었으니 현 교육감에게는 시험삼아 맡겨보자는 것이다.

◇김 일 섭 의원

- 토론 종결 동의

◇김 삼 성 의장

- 10분간 휴회선언 하오 3시 30분 현재

◇김 삼 성 의장

- 속개선언. 하오 3시 40분

◇김 삼 성 의장

- 박 교육감의 증언과 이정권 의원의 조사내용이 상치된바 있으니 교육청측의 명확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후 조치하도록 3인정도의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전원 찬성

감사위원으로 김일섭, 명남철, 천철수 의원을 지명

◇김 삼 성 의장

- 폐회선언 하오 3시 4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2월 1일

시의원 김일섭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